

한국 선수, EPL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1, 2위 독차지

박지성(43)이 영국 매체 선정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1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날 EPL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 중 최고의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매체는 출전 경기 수와 트로피 수, 팀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순위를 나열했다고 밝혔다.

1위는 2005~201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활약한 박지성이었다. 박지성은 EPL 우승 4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FIFA 클럽 월드컵 우승 등의 기록을 남겼다.

매체는 "박지성은 현역 시절 EPL에서 무려 12개의 트로피를 얻었고, 이는 다른 아시아 선수들의 우승을 합친



▲ 박지성(왼쪽)과 손흥민. 사진=AP/뉴시스/토트넘 SNS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2021~2022 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2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현재까지 EPL 293 경기에 출전해 117골 60도움을 기록 중이다.

매체는 "손흥민은 EPL에서 100골을 넣은 유일한 아시아 선수"라고 밝혔다. 그

리면서 "2021~2022 시즌에는 23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3위~5위는 오카자키 신지(일본), 토미야스 타케히로(일본), 알리 알 합시(오만)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청용(울산 HD)과 기성용(FC 서울)이 각각 7위, 9위에 올라 톱10 안에 들었다.

코리안 빅리거, 대활약 예고

한국에서 사상 첫 개막전을 치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가운데 코리안 빅리거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13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을 맺고 MLB에 진출한 이정후는 미국 무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시범경기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NL 신인상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올시즌 기억해야 할 100명의 선수' 순위를 매기면서 이정후를 3위에 올리기도 했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지난 시즌 MLB 최고의 내야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며 골드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수상했다.



▲ 지난달 5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2024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시범경기에서 적시타를 친 이정후가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osen

미국 진출 4년째를 맞이하는 김하성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1억 달러 이상의 '대박 계약'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박효준(오른랜드 어슬레틱스)의 활약도 기대된다. 오른랜드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초정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출전한 박효준은 23경기에서 타율 0.477(44타수21안타), 1홈런, 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37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지만 트리플A에서 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트리플A에서의 활약에 따라 콕업될 가능성이 높다.

NBC스포츠는 "(박효준은) 오른랜드의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체자로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악의 100마일 마라톤, '최초 여성' 완주자 탄생



▲ 바클리 마라톤에서 완주한 재스민 패리스가 지친 모습으로 결승점에 기대 있다. 사진=instagram(howiestemphoto)

제한시간 60시간 안에 100마일(160km)을 주파해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울트라마라톤(42.195km 이상을 달리는 마라톤) 중 하나인 바클리 마라톤에서 첫 여성 완주자가 탄생했다.

지난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영국의 수의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재스민 패리스(40)는 지난 22일 미 테네시주 '프로즌 헤드 주립공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제한 시간을 불과 99초 남긴 59시간 58분 21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 20일부터 시작한 올해 경기에서는 패리스를 포함해 5명만이 제한 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5명 완주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3명이 완주한 것이 종전 최고 기록이었다. 패리스는 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그는 완주 후 너무 지쳐 땅에 널브러지기도 했다.

매년 열리는 바클리 마라톤은 20마일(32km)의 코스를 5바퀴 달리는 동안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2배가 넘는 약 1만8900m의 산악지대를 오르내려야 하는 등 극한의 코스로 악명이 높다. 1977년 시작돼 1989년 160km로 확장된 이후 지금까지 단 20명만이 제한시간 60시간 이내에 완주했으며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99%에 이르는, 완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마라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58시간 44분 59초로 주파한 우크라이나의 이호르 베리스가 차지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